

ING 생명, “규제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험사”

- ▶ 수익창출 능력과 성장성,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도 ↑
- ▶ 창립 30주년 맞아 내달 코스피 시장 입성 통해 제2의 도약

[2017-04-19] ING생명보험(www.inglife.co.kr, 대표이사 사장 정문국)이 코스피 입성을 통해 업계 명가의 위상을 드러낸다.

ING생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정문국 사장과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IPO(기업공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 회사를 소개하고 회사의 장점과 투자매력을 설명했다. ING생명의 공모 예정가는 31,500원~40,000원으로 공모규모는 1조 552억원~1조 3,400억원 수준이다. 신주 발행 없이 총 3,350만주를 구주매출 형태로 공모한다.

1987년 출범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는 ING생명은 선진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 지난 2016년에 총 자산규모 30조원을 돌파했다. 업계 최상위권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수익성, 효율성, 리스크/자본관리 역량 등 경영의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16년말 현재 319%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기 채권 등 안전자산 비율이 97%에 달할 정도로 우량한 자산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또한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ALM(자산부채관리)전략을 구사해온 덕분에 금융당국이 향후 지급여력제도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RBC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규제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상품 혁신과 전속 FC채널 강화, 미래성장을 위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 뛰어난 수익성을 이어왔다. 생명보험회사의 3개 이익원천(사차, 이차, 비차)에서 모두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2016년도 당기순이익률은 상장 생보사 평균(2.8%)을 크게 웃도는 6.8%*를 나타냈다.

*일회성 요인(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외 기준

ING생명은 이같이 균형 잡힌 자본건전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배당성향을 2014년 45%에서 2016년엔 58%로 13%포인트 높이는 등 주주이익 창출에 있어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

외형성장 추이를 보면, ING생명은 ‘연납화보험료(APE*)’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회사의 주력채널인 FC채널의 경우 상품믹스와 FC생산성 개선, 가동 FC인당 월소득 증가, 정착률과 계약유지율 개선 등의 선순환이 이뤄지며 회사 영업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APE: 월납, 분기납, 연납, 일시납 등 모든 납입 형태의 보험료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지표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ING생명은 ‘고객의 꿈을 위한 든든한 금융파트너’라는 비전아래 수익성,



성장, 효율성, 자본/리스크 관리 간 최적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영을 해왔다"며 "이번 상장은 보험 산업 내 ING생명의 위치를 돋보이게 하는데 기여하고 우리의 가치를 더욱 차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NG생명은 2015년 미래에셋생명 이후 2년 만에 상장하는 생보사로서, PEF 소유 기업으로선 첫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된다. 오는 21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27일과 28일 공모청약을 받은 다음 5월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ING생명 주요 IPO 일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7년 3월 23일
수요예측	2017년 4월 6일 ~ 21일
청약	2017년 4월 27일 ~ 28일
코스피 상장	2017년 5월 중

공모주식수	33,500,000주(총 주식의 40.9%) / 100%구주매출
공모 희망가액	31,500원 ~ 40,000원(액면가 1,000원)
공모 예정금액	1조 552억 원 ~ 1조 3,400억 원

■ 문의

ING생명보험(주) PR&커뮤니케이션부

이가원 부장 / 전화 : 02 2200 9289 / 휴대폰: 010 3792 3399 / gahwon.Lee@mail.inglife.co.kr

이지현 차장 / 전화 : 02 2200 9348 / 휴대폰: 010 3695 9916 / jihyun.lee7@mail.inglife.co.kr

IR큐더스

이진영 책임 / 전화: 02-6011-2000(#138)